

한일해저터널 논의 다시 불붙나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힘입어 한일 양측서 검토... 규슈에 추진모임 결성

최근 부산-후쿠오카 간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도시를 연결하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후쿠오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20여 년 전부터 진행돼 왔으나 지난달 20일 부산시장과 후쿠오카시장 등이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협력하는 창구로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회의'를 창립하고, 지난 1일 열린 부산-후쿠오카 포럼에서는 초광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실천과제가 논의되고, 민간협력·문화 교류 증대에 합의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 도시 거리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문화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위

해서는 해저터널을 통한 두 지역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2일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 이계식 원장은 "한일 간 터널 연결은 동북아 통합구축망 차원에서 새로 조망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부발연 최치국 선임연구위원도 "부산-후쿠오카 연결터널을 통해 500km 권역 내의 도시는 자동차와 철도 노선을 이용, 동일 생활권 및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도 나왔다. 당시 세미나에 참가했던 일한터널연구회 후지하시 겐지 상임이사도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후쿠오카와 한국 부산을 잇는 것

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에 대한 관심이 부산에서만 일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권(김해시 갑) 국회의원 한일해저터널 공사 사업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경길 청와대비서실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일본은 자민당 규슈지역 중의원 14명을 중심으로 해저터널추진모임을 결성하는 등 일본에서도 최근 한일터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도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 한국 측 재계인사 15명과 도요타 자동차 회장 등 일본의 주요 경제인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일해저터널의 공동 연구를 주장하기도 했다.

권경훈 기자

동해안절경 감상하는 바다열차 6일부터 운행

코레일 부산지사는 열차를 타고 동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바다열차체험 여행상품'을 마련, 오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바다열차는 오전 6시30분 부산역에서 우등 관광버스를 타고 강원도 추암역까지 이동, 점심식사를 한 뒤 촛대바위를 감상하고 삼척역으로 와서 해안선 열차를 타는 코스다.

삼척역에서 열차를 타면 동해와 정동진, 강릉까지 58km의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동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바다열차는 바다 쪽으로 자리가 향해 있어 통유리로 특별 제작된 창문을 통해 열차 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돼 있다.

강릉역에서 내려 무릉계곡을 돌아 본 뒤 다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오면 된다. 문의 ☎051-466-8122

권경훈 기자 werther@chosun.com

朝鮮日報（釜山・慶南）2008年11月3日

韓日海底トンネル：論議が再び活発化

釜山・福岡の「超広域経済圏」構想を背景に 韓日双方で検討……級数に推進の集まり結成

最近、釜山市と福岡市の間で「超広域経済圏」の形成を目指す具体的な論議が本格化している中で、両都市を結ぶ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に関する論議も再び活発化しつつある。

釜山と福岡を海底トンネルで結ぶ構想に関する論議はすでに20年余り前から浮上していた。先月20日に両市の市長らが「超広域経済圏」の形成に向けて協力するための窓口として「釜山・福岡経済協力協議会」を発足し、また今月1日に行われた「釜山・福岡フォーラム」では「超広域経済圏」の形成に向けた実践課題について話し合われ、民間レベルでの協力や文化交流の拡大について合意するなど、これまでにないほど両都市の距離が縮まっている中で、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に関する論議も活発化しているのだ。経済や文化などの面での協力を可能にするためには、海底トンネルによって両都市の物理的な距離も縮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わけだ。

釜山発展研究院のイ・ゲシク院長は2日、「韓日両国を海底トンネルで結ぶ構想は、北東アジアの統合という次元で新たに検討していくことが望ましい」と述べ、また同研究院のチェ・チグク研究員も「釜山 - 福岡間を海底トンネルで結ぶことにより、500キロ圏内にある都市との間を自動車や鉄道で移動し、一つの生活圈や経済圏を形成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との考えを示した。こうした意見は先月30日、「韓日トンネルの建設および北東アジアの統合交通網の構築」をテーマとして行われたセミナーでも出た。このセミナーに出席した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藤橋健次常任理事も「韓日海底トンネルは日本の福岡と韓国の釜山を結ぶのが基本的な条件となる」と主張した。

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については、釜山だけで関心が高ま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ため、実現の可能性への期待感はさらに高まっている。

先月31日に国会で行われた大統領室に対する国政監査では、ハンナラ党の金正権（キム・ジョンクォン）議員（慶尚南道金海市甲選挙区）が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に関する妥当性について検討する必要性を訴え、これに対し大統領府の鄭正佶（チョン・ジョンギル）秘書室長が前向きな答弁をしたという。一方、金議員によると、日本側では自民党の

九州選出の衆議院議員 14 人が中心となって「海底トンネル推進の会」を結成するなど、海底トンネルの建設に対する関心が最近さらに高まっているという。

また、先月 10 日には錦湖アジアナ・グループの朴三求（パク・サムグ）会長が、コーロンのイ・ウンニョル会長など韓国財界の要人 15 人と、トヨタ自動車の張富士夫会長など日本の主な経済人 12 人が出席して行われた会議の席上で、韓日海底トンネルに関する共同研究の必要性について言及した。

釜山＝クォン・ギョンフ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